

## 75. 금속 부품 열처리 근로자에게 발생한 후각소실증

**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강OO은 1995년 12월부터 고주파 열처리 작업을 하면서 많은 연기에 노출되었으며 2006년 11월에 OO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각소실로 진단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강OO이 작업하는 공정은 자동차부품 중 O/RACE, T/HOUSING의 고주파 열처리 작업이다. 이러한 열처리 방식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있으나 강OO이 했던 공정은 켄칭작업과 템퍼링작업이 있다. 켄칭작업은 가열 후 물이나 기름에 담가서 급랭시켜 재료를 경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템퍼링은 켄칭(담금질)한강은 경도(단단함)는 크나 취성(부서지거나 깨지는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경도를 다소저하시키더라도 인성(질긴 성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작업시 사용하는 수용성열처리제 및 방청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salicylic acid, Benzoic acid,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Methanamine, Methylamine, Morpholine, Butanol 등의 유기용제 등이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2003년 8월 경 야간 근무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때 빨래를 삶기 위해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세숫대야가 타면서 발생한 연기를 보게 되었으나 아무런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후 냄새를 못 맡으면서 미각이 소실되고 입맛이 없고 이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져서 2006년 11월 6일 무취증으로 진단받았다. OO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에 의하면 강병권은 후각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강OO은 2006년 5월 25일, 6월 19일, 7월 3일 각각 후각검사(KVSS)를 실시하여 4점, 9점, 3점을 받아 무취증으로 진단받았다. 그리고 PNS series(부비동 엑스선)검사서 non specific(특이사항 없음: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4. 결론:** 따라서 근로자 강OO은

- ① 후각소실증으로 진단되었고, 열처리 작업 이후 후각장애를 호소하였고
- ② 열처리에 사용되는 열처리유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다종의 유기용제가 검출되었고
- ③ 동료근로자의 진술에서 7년 동안 유기용제가 함유된 열처리유에 의한 연기에 고농도 노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 ④ 유기용제 이외의 다른 원인(부비동 질환 등)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근로자 강OO의 후각소실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